

2019년 1월 30일 배포	보도자료(성명)
발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성명] 청계천 재개발 중 독립운동가 가옥도 철거, 3구역 철거 즉각 중단하라	
문의: cheongyecheon@gmail.com / 담당: 010-2693-1062	

성명

청계천 재개발 중 독립운동가 가옥도 철거, 세운**3**구역 철거 즉각 중단하라
1월 29일 밤 독립운동가 전기종 가옥 기습 철거
박원순 시장 재검토 발표 이후에도 밤낮으로 철거 이어져

1. 청계천 재개발 공사를 멈춰라!

1.1.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는 공사

청계천 을지로의 역사보존및 기술 장인들의 지난 1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철거가 진행 중이던 세운 3-1,4,5구역에서는 이후 단 한차례도 철거 공사가 멈춘 적이 없다. 오히려 야간 철거가 더욱 활발해진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월 29일 20시 30분 경, 세운 3-1구역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전기종의 집(중구 입정동 135번지)을 철거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야음을 틈타 보존 연구가치가 있는 일제강점기 가옥을 철거한 것이다.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이하 보존연대)는 서울시의 재검토 선언이 있었음에도, 독립운동가 가옥마저 철거하는 한호건설을 규탄하며 이를 방관한 서울시와 중구청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1.2. 독립운동가 집도 부수는 서울시, 중구청, 한호건설

보존연대가 입정동 일대의 독립운동가 주소를 조사할 당시, 입정동에는 약 20명의 독립운동가의 주소가 발견되었고 그 중 집이 남아있는 경우는 약 11군데 였다.



<입정동 독립운동가의 주소 : <http://bit.ly/2sSil1z> 파란색 풍선을 누르면 독립운동가의 정보를 볼 수 있다.>



<2019년 1월 29일 밤 기습철거 된 전기종, 전현철의 하숙집(입정동 135번지) >



<2019년 1월 29일 밤 8:30 분 경 기습철거 된 전기중, 전현철의 하숙집(입정동 135번지) >

철거가 진행 중인 세운 3-1,4,5구역에는 전최식의 집(입정동 197번지), 이복기의 집(입정동 3번지), 전기중·전현철의 집(입정동 135번지)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전최식과 이복기의 집은 1월 초 이미 철거되어 사업구역 내 유일하게 전기중·전현철의 집만이 남은 상태였다. 보존연대와 시민들은 관할당국인 중구청과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전기중의 집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시행사가 무리한 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입정동 135번지 건물(준공연도 미상, 사용승인 1933년 7월)은 6·10 만세운동의 최고주모자 전기중의 하숙집이었던 곳으로, 전기중은 이 건물 2층에서 검거되었다. 이 곳은 전기중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전현철의 집이었는데, 전현철은 당시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이 집에서 1926년 7월 21일 검거되었으며 박헌영, 권오설 등이 이끈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 건물은 건축사적으로도 일제강점기 조적조 건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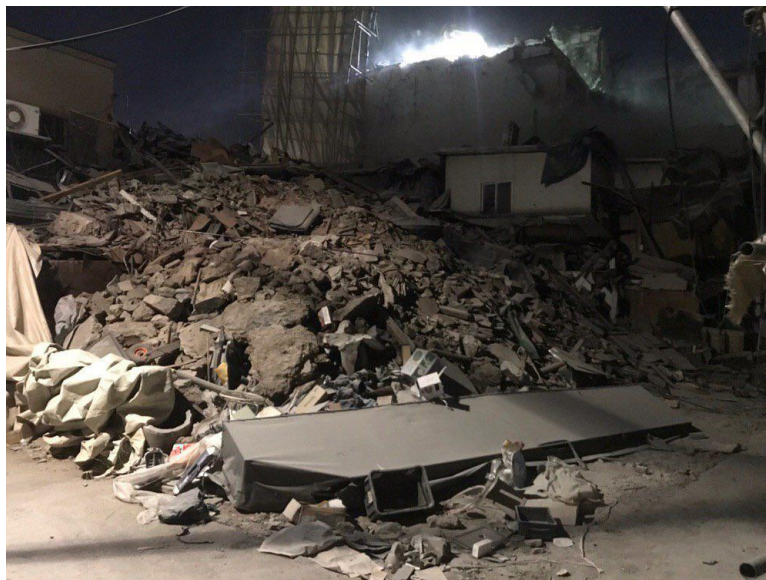
1.3 독립운동100주년 양면의 얼굴

서울시는 한쪽에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당장 독립운동가가 살았던 가옥이 조사도 없이 철거되도록 방관하고, 도심산업생태계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생태계의 핵심과도 같은 세운 3구역의 철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검토라는 발언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냥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당장 그만두고, 3구역의 철거부터 즉각 중단하라.

2. 계속 되는 야간공사와 분진 소음과 주요 도로 폐쇄

2.1 야간공사와 분진

역사를 무시하는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계속되는 야간 철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잠을 자기 어려운 지경이며, 야간 철거시 분진방지를 위한 살수 작업을 하지 않아 환경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석면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이에 대한 대처도 보이지 않으며, 철거 중 아직 이주하지 않은 업체의 창고를 허무는 일도 두 차례나 발생했다.



<거의 매일 진행되는 야간공사>



<2019. 1월 19일 오전 : 야간 철거 공사로 인한 분진(박원순시장님 세운 재설계 검토 발언 1월 16일)>

2.2. 주요 도로 폐쇄

특히 시행사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길이면서, 현재 해당 구역의 가장 주요한 도로이자 소방도로로 역할하는 도로(산림동 253-1도)를 폐쇄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3구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통행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좌: 세운3구역 붉은색 선 산림동 253-1도로, 우: 도로폐쇄 안내 표지판>

3. 관리처분인가 선이주 선철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이전 선철거, 선이주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중구청은 관리처분인가(2018 10월 28일) 이전 건물철거 및 선이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확인 결과 건물철거가 5월 21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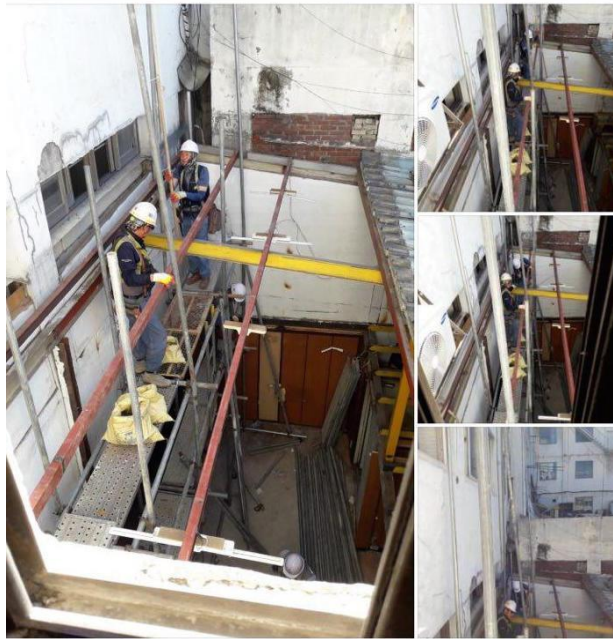
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심각한 주거권, 노동권 침해이다. 서울시는 용산참사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선철거 선이주에 대한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라.



2018년 5월 21일 오전 8:44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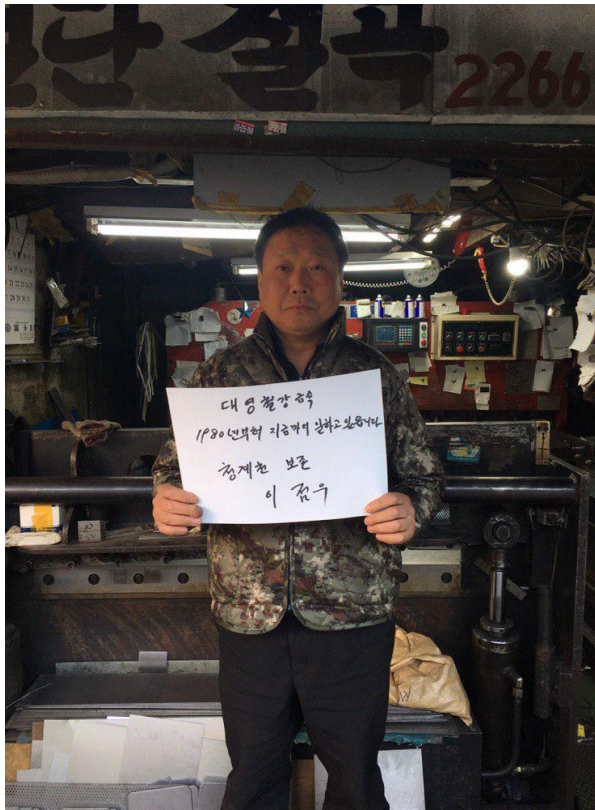
앞에서는 철거 안하고 뒤에서 쥐새끼마냥 작업하고 있네요
위험하니 인도에 있는 파이프 철거와 무허가 작업 종단을 강력
하게 외쳐주세요
중구청 도심재생과 전번입니다
...더보기



4. 청계천 공구상가 및 공업사를 보존하고 3-1,4,5 구역에 아파트 대신 장인들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기술 고등 학교 현장실습소, 대학 연구소, 4차산업 스타트업 지원 공간, 예술가들과 협업 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만들라

박원순 시장의 재개발 검토 이후 공사는 단 하루도 안멈췄으나 3구역 및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세입자들에게 나가라는 통지가 매일 하나씩 오고있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에 재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노포만을 남기겠다는 수준 미달의 발언은 그만 멈추어야 한다. 청계천의 주인은 청계천에서 40-50년 노동으로 역사를 만든 상인들과 장인들 그리고 그 곳을 감사하게 사용해온 예술가, 디자이너, 시민 모두이다.

기술장인들은 자신의 노동을 전수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사라질까봐 두려워 하고 있다. 청계천 공구상가 및 공업사를 보존하고 3-1,4,5 구역에 아파트 대신 장인들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기술 고등 학교 현장실습소, 대학 연구소, 4차산업 스타트업 지원 공간, 예술가들과 협업 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길게는 40년에서 짧게는 30년 공업사를 운영해온 장인들>